

저는 이 시간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미얀마의 선교 상황 보고와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전체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가장 저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뭘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 붙어 있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열매를 맺으려고 너무 노력하는 게 힘들어요.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머지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제가 선교사 생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 뜻이 아닌데 내 의지대로 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된다.

예수 믿으면 좋다. 너 문제 있는거 다 해결되고 행복하다. 예수 믿어라 나를 따르라 따라왔는데 제가 구박합니다. 일을 못하고 왜 시간 안 지키냐고 해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러 갔는데 그 사람이 상처를 입고 예수님 믿는데 힘들어 집니다. 제가 잘못된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 까요. 열매는 주님께서 맺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제 마음에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내가 너무 오바했구나.

미얀마가 지금 몇 년 동안 상당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을 데리고 있는데 한밤중에 군인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신학생들의 신분증을 뺏어가요. 신분증이 없으면 시외로 차를 타고 나갈 수가 없어요. 다음 날 제가 가서 해결합니다. 미얀마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지만 공산주의 시스템을 깔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제하기 때문에 계속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고민 중에 친구 선교사님이 지역에 군인통제가 약한 곳으로 제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시나 저는 사실 처음에 거기 가기가 싫었어요. 너무 멀고 통제된 곳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제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그 길로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겠다. 그쪽에 가서 신학생들을 훈련시키려고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아내가 물었어요. 당신 올라가서 신학교 그것을 할 예정이냐고,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이면은 내가 가야 되지 않겠냐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에게 자기는 죽어도 못 간다, 아이를 두고 그까지 어떻게 가느냐 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이 선교사 사역을 하면서 가장 값이 느끼는 것은 제 뜻과 제 의지보다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출 수가 있어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계획과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실패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축복을 충만히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얀마는 정말 비옥하고 풍부하고 너무 아름다운 나라예요. 사람들도 사실 너무 좋죠. 그런데 이 미얀마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잖아요. 영적 저주를 받게 됐어요. 미얀마를 예전에 제가 선교 팀이나 목사님들이 오시면 절을 잘 안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불상이 많다고 해요. 이거는 사실 큰 절에 비하면 약과입니다. 절에는 금으로 도배된 부처상이 있고, 사파이어, 루비 등 정신없이 장식되어 있으며 화려합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고 굶주리고 있죠. 땅에 농사를 지으면 엄청 소출이 많습니다. 쌀도 많고, 옥수수는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보다 크기가 서너 배 큼니다. 심지어 맛있기까지 합니다. 땅도 넓어 먹고 남을 정도의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배가 고파요. 먹을 게 해결이 안 돼요. 먹을게 우리 주일 학교 애들도 저 전도사 할 때는 이제 주일 학교 끝나면 크라운 산도 같은 거 줬거든요. 과자 주는 것보다 쌀 주는 게 나아요. 나라가 전쟁을 하고, 식량이 공급되지 못하며, 사람들은 돈이 없고 굶주리고 있는 것은 영적인 저주 속에 있어서입니다.

큰 절을 지어놓고, 조계종에서 1년에 몇 번씩 서너 대씩 전세기를 띄워서 옵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정성들여 기도하고 섬기지 않습니까? 잘못된 신에다가 엉뚱하게 우상숭배를 하니 그 영적 저주가 이 온 나라에 확 덮쳐버린 겁니다. 이 온 나라에 영적 저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 그런 영향권에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고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영적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주님을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생각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는 동안 미얀마에 사역을 들어가서 처음에 방향을 제가 아예 정하고 들어간 거예요. 정하고 아예 방향을 제가 그전에 선교를 했기 때문에 주로 체력을 많이 사용하는 선교를 했어요. 돌아다니고 선교를 하러 다니고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미얀마에 들어갈 때 아예 방향을 정합니다.

방향이 바로 돼야 엉뚱한 길로 가다가도 이렇게 돌아오지 방향이나 목표가 아예 처음부터 잘못되면 계속 엉뚱한 데로 가게 돼 있어요. 고생을 해도 방향에 맞게, 힘들어도 저는 방향을 사람 키우는 사역만 합니다. 제가 사람을 키우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훈련시키는 사역에 처음부터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들어가서 제가 그곳에 집중하러 미얀마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미얀마에 갔는데 시작은 기독교 사역자가 중북부 지방에서 이분이 어떤 이유로 죽게 됐어요. 근데 이 하나님 일을 하는 사역자가 죽었는데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를 그냥 두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된다고 조금 있으면 이제 군인들이나 관공서에 데려다가 절에 넣으니까 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절에 들어가면 못 나와요. 아예 아침에 일어나서 이 불공 염불하고 또 그 안에 학교가 있어요. 아예 거기서 불교식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면 그렇게 성장해서 스무살이 되고 그렇게 쪽 커버리면 이 아이가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삭발하고 돌아다니고 그런데 그게 일반 사람도 아니고 우리 사역자 자녀인데 이 자녀가 스님이 되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장소가 없어서 우리 신학생들하고 같이 있다가 외곽지애다가 아이들을 두게 됐어요. 이제 지방의 크리스천들이 부모가 죽은 아이들을 두고 제가 이제 신학교를 하기 때문에 목회자들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 교인이 죽었는데 우리가 애돌보기가 힘들다 합니다. 부모는 크리스천이고 잘못하면 절에 끌려가니까 좀 말아달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아서 지금까지 고아원 사역을 계속하여 지금 한 20여명의 아이들을 우리가 데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사역을 다른 선교사에게 소개하고 이양을 하려고 제 사역에 집착을 하려고 했는데 이 아이들이 사실은 데리고 있으면 그냥 잘크는 게 아니예요. 때 되면 아프고 또 학교의 어떤 문제도 있고 신경 쓸 일이 많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은 이게 하나님 계획이다 생각하고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여전도사처럼 교회 가서 찬양 인도하고 확장 사역을 하고 또 남자 아이들 중에는 또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는 전도사가 되고, 몇몇은 숙식을 제공해주는 곳으로 일하러 갑니다. 그래서 제가 고아원 사역을 하는데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해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제 마음이 대단히 안정이 됩니다. 그동안 이렇게 고아들을 위해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붙잡으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처음에 잡을 때 예수님을 딱 붙들어서,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제가 마지막에 제가 가장 키 포인트를 둔

게 신학교 사역인데 원래는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사역이었죠. 그걸 목표를 두고 갔는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사역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목표를 두고 신학생을 모으니까 주위에서 저보고 이제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무슨 신학교를 합니까? 신학교 못 한다고 미안마 신학생 모으기 힘들다고 안 된다고 그래요.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3명이 오든 나 이거 하려고 왔기 때문에 난 딴 거 안 한다고 방향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앉아 있고 졸업하고 또 사역을 하더라도 영어로 우리가 수업했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못 배웠을 거거든요 하고 제가 신학 수업을 하게 됐죠.

미얀마는 현재 상황이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 있죠. 그런데 미얀마에도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크리스천들이 있는 것이죠. 이 강한 크리스천들은 정말 그 지역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신앙의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기도해 주시고 선교를 위해서 후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떤 강한 물살이 있어도 다 살아서 물을 치고 올라갑니다. 늘 승리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눔 질문1 : 말씀에 관련된 자신의 상황을 나눠주세요!
나눔 질문2 : 자신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된 부분, 도전이나 깨닫게 된 부분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나눔 질문3 : 말씀을 통해 어떤 변화를 다짐하게 되었는지 나눠주세요!

온누리교회 055)386-0091

<http://www.onnurimission.org>